

예장합동 목사·장로기도회, 충현교회에서 열려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는 제108회 여성안수를 간곡히 호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예장합동)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충현교회(담임목사 한규삼)에서 지난 8일 오

후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1964년 제1회 전국 목사기도회와 제

1회 전국 장로기도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3년 5월 8일 현재 충현교회에서 열려

20회째가 된다고 밝혔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본당에서 제1회 전국 목사

기도회를 시작으로 1964년 3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제1회 전국 장로기도회가 개최

되었다.

의 산실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예장합동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2023년 5월 8일 현재 60회째를 맞았으며 그 가운데 처음 기도회를 개최하여 18차례에 걸쳐 충현교회에서 열렸다. 충현교회 담임 한규삼 목사는 당회원들과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두 번 더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한다면 20회째가 된다고 밝혔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본당에서 제1회 전국 목사

당시 예장합동 총회는 1959년 WCC 문제로 예장통합과 분열로 새로운 총회를 만들어 총회신학교를 복구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1963년 고려파(예장고신)가 환원을 하면서 충격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목사기도회와 장로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총회와 총회신학교 발전에 힘을 모아오면서 현재 예장합동은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2023년은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제 60회째 충현교회에서 열렸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찾아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오는 '제108회 여성 안수

의 문이 열려, 여성 사역자들이 성별에 제한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총회의 새로운 개혁과 부흥을 위해 여성안수를 허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호소했다.

본보 10면에서 여성 안수의 건 이어진다.



웨신총회 제2회 가족의 날 축하 행사 가져

노란색 붐을 일으킨 호남노회 단체복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총회장 김현수 목사, 총무 김복래 목사)는 2023년 5월 5일 동탄소재 푸른중학교 운동장에서 가지려던 행사를 우천 관계로

꿈너머꿈교회(총회장 김현수 목사) 본당과 교육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웨신총회 가족의 날 행사를 가졌다. 웨신 가족의 날 행사는 지난해 이어

제2회 차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전시에 도 전국에서 많은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김현수 총회장과 함께 축제의 장을 이루었다. 웨신은 이날 "하나



총회장 김현수 목사

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총회가 추천한 모범 목회자 4명을 표창하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모두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였다. 이날 총회장 김현수 목사는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증경총회장 이영풍 목사에게 공로상을, 모범 노회장 상에는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 모범 목회자 상은 한서노회 임영선 목사, 사회봉사 상에는 동서노회 송철용 목사 등이 각각 수상을 안았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어린이들도 참여하여 탁구대회, 훌라후프, 제기차기, 줄넘기 등 장기를 자랑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등 기쁨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김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가 한국교회 내 중견 교단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도록 각 노회와 총회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모든 총회원들이 총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사역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회로 만들어 나가자며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참석자들에게 총회 뺨지를 제작, 배포하여 총회원 모두가 정체성을 갖고 하나가 되는 계기를 갖자며 총회 뺨지를 전달했다. 행사를 마친 뒤 한서노회장 이승표 목사는 총회가 역동성 있게 일하고 총회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잘 되어 모두가 행복한 행사였으며, 향후 총회의 모든 행사에 노회장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짐했다. 총회는 향후 5월 13일에는 선교사대

회를 개최하고, 5월 20일에는 목회대학원을 운영하며,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여수 일대에서 목회자 하계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는 노회원들에게 가족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노란색 티셔츠를 단체복으로 착용함으로써 모범이 되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2023, 총회 하기 수양회

주제 : 성령으로 힘써 하나 되라! (엡 4:1~6절)

총 회 장	교육부장	교육부서기	총회서기	총회 총무	총회 회계
					
이규필 목사	정요한 목사	김관호 목사	서재식 목사	박용순 목사	송인섭 장로

일 시 2023년 5월 29~31일 (2박 3일)

장 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고성대로 47~24 일성 콘도. 리조트 (T. 1566-8113)

각 노회 후원 20만원 / 1인 회비 8만원 / 1인 총회보조 5만원

하나님의 은혜로 힐링의 부부수양회에 총회원 모두를 사랑합니다. 각 노회서기는 교육부 서기 김관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수양회에 오시면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총회에서 보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오셔서 힐링의 수양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총회장 및 임원 모두가 환영합니다.

총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전화:(02)496-0191 / 0181(FAX 겸용)

한기총 성명서, 서울시의 퀴어행사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관련 조례, 교과서 등도 바로 잡히기를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서울시는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서울퀴어 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내리고,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에 사용을 허가했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일이 중복되는 경우, 청소년 행사 등 공익 목적의 행사를 우선한다는 조례를 적용했음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판단을 존중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는 동성애 관련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행해지는 것을 적극 반대해왔다. 창조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죄적인 모습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비판하거나 지적하지도 못하게 하

고, 행동이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치달을 뿐 아니라 동성애가 방송과 교과서 등에서 조장되는 것을 볼 때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언론보도준칙이라는 족쇄에 매여 동성애를 비판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정치권은 선거 때문 되면 어김없이 차별금지법으로 표를 저울질한다.

지금도 퀴어행사 불허에 대해 주저 측은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집단을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프레임을 씌워 공격한다. 언론은 동성애 집단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말하지도 못하고 방종을 비판하고 죄를 지적하는 한국교회에는 '혐오'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한다. 에이즈가 퍼지고, 원숭이 두창(엠펙스)이 번져도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지적은 찾기 힘들다.

서울시는 바람직한 결정을 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청소년

년과 청년들을 위하는 일인가? 과거 퀴어 행사에 과도한 신체 노출, 성기 모양의 유해·음란물 쿠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과 없이 보여질 수 있는 서울광장에서 이러한 퀴어 행사는 불가했던 것이다. 설령 CTS문화재단이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퀴어 행사는 불허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동성애를 적극 반대하며,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관련 조례, 교과서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잘못된 것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3년 5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한노인회에 어르신 공경 떡 나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떡 나눔 등 다양한 행사 진행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2일(화) 오후 대한노인회에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르신 공경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다누리푸드 이종섭 대표가 떡 5,0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한기총에서 떡을 후원해줘서 감사하다.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전국 244개 지회

에 떡을 잘 나누고, 이런 후원이 노인 공경 및 세대 간 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천만 노인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노인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은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전 세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도 없다. 전쟁과 기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다 견디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한기총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낙원상가와 동자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떡을 후원했다. 또한 한기총 복지위원회(위원장 신현욱 목사)는 8일(월) 오후 2시 30분 시은 은혜기도원에서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도시락 나눔' 행사로 1,0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國賓) 방문하면서,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송물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KBS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하여 토포 프로그램(최경영의 최강시사,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의 라이브, 김성완의 시사야)을 방송했는데, 친야쪽 인사가 61%를 차지하여 절대다수이고, 친여쪽 인사는 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사는 총 131명(중복출연 포함)인데 그 중에 친야쪽 인사가 80명이었다.

반면에 친여쪽 인사는 11명에 불과하였다. 중립적인 인사는 40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패널들로 구성한 것으로, 편파방송을 자행한 것이다.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진보 좌파언론인으로 분류하는, 시사타파 기자 출신, 민주노총 소속 아나운서, 진보성향 유튜브 운영자, 진보좌파 언론 기자 출신,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들이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아도, '한미정상회담은 반 잔도 아닌 빈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영어로 연설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을 쏟아내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회에서 연설한 분은 7명인데, 그 중에 영어로 연설한 것은 윤 대통령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통하여 '김종태의 시사 집중' '신장식의 뉴스 하이라이프'를 통하여 방송했는데, 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총 34명인데, 그중에 27명이 친야쪽 인사로 79%를 차지한다고, MBC 제3노조가 발표하였다.

역시 출연한 인사 가운데는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 기능이 뒤죽박죽되면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실수나 말을 덮는데 소모됐다'고 발언하였다. 또 다른 인사는 '위싱턴 선언이고 무슨 공동성명이고 험란한 수사는 많은데 기껏해야 확장억제 하나밖에 없다'고 발언하여 아예 방미 성과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평가박살내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전문가들과 해외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의 공영방송들만은 한껏 외교적 성과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공헌(?)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언론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여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기반하는 것이고 언론 역할을 스스로 포

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KBS의 시청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가 96.1%를 차지하고 있음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정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아부하거나 편드는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국민들이 특정 정파나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들이 의도적이고 편파적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방송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언론은 대부분의 사건 현장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에 맞는 패널들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미 자기를 각본에 짜여진 대로 입을 맞추는 식의 보도는 국민들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방송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 '꺼지라'고 하고 싶다.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과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공영방송들이 이처럼 몰상식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일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하여 무거움을 느끼기 바라며, 제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도 한참 밑도는 저급함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또 방송의 질(質)을 평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확실히 되살아나기 바란다.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와 좋은이웃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어버이 날 카네이션 나눔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지사장 노형권)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복)는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100가구에 카네이션을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며, 홀로 어버이 날을 보낼 독거 어르신 및 노령 부부가구에

사랑과 온정을 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의 후원과 좋은이웃들 지원 사업으로 취약가구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직원과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생활지원사가 직접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온정을 나누고, 카

네이션 전달을 비롯한 취약가구에는 좋은이웃들 사업에서 식료품 꾸러미가 함께 지원되었으며, 말벗봉사활동 및 안전 안부확인도 병행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정문균 지사장은 "매년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에 고립되어있는 관내 취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었으며, 꾸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진복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외로이 어버이 날을 보내실 취약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노형권 지사장님과 직원들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어버이 날이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축

교회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http://www.mokpojuan.com>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담임목사 모상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합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계시록 12장 강해(65)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시간 11장 강해를 마무리한 다음 계시록 12장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광으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게 됨을 미리 알기에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도요한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이는 그 분이 언약하신 것, 성경에 언약하신 것들 중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언약들이 보여지고 특히 본인들에게 관계된 언약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빛으로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해주시실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개입니다. 이 보여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역사가 천둥입니다. 하지만 보여졌는데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는데도 믿지 않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바로 지진과 우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을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의 영광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고 있으면 하늘나라 영광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것이고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불순종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땅에 있는 것을 흔들어서 털어버리게 하는 것이 지진이고 그것을 강그리 부숴 버리는 것이 우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총론적인 역사이고 이것은 제16장에서 구체적이고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강해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2절: 아이를 뱀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하늘에 큰 이적: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여인을 두고 마리아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구약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 하였던 세례요한까지를 해 입은 여인으로 보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해 입은 여인을 교회로 보고,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종들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적이란 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의 하늘에 큰 이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큰 구원의 역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보통 구원이 아니라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바로 한 여인이 해를 입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계 20장]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며 [계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자들인 것이고,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144,000이라 하는 자들이고, 또는 순교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두 유형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부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여인은 그런 첫째 부활 할 자들을 낳는 자들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바로 [계 2장]과[계 3장]에서의 일곱 금촛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금촛대 교회를 통해 낳은 자들이 칠장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재림시에 같이 내려오는 자들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때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의 여인은 금촛대 교회를 말하고 이 여인이 낳는 아들은 환란 날에 순교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아들을 첫째 부활할 자들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할 자들은 구약의 아벨부터 환란 날에 순교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해 입은 여인이 낳는 아들은 첫째부활에 해당되는 자들이나 그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 즉, 환란 날에 순교하고 사역할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확실하게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해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며, 신랑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함은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을 주관하는 광명인 해는 하나님, 성자하나님, 진리,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첫째부활의 영광의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건물이나 금촛대 교회의 사자와 그 성도들이 해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100% 다 해를 입게 되는 것이 금촛대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을 주관하는 광명인 해는 하나님, 성자하나님, 진리,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첫째부활의 영광의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은 [창 1:16]에 밤을 주관하며 땅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어둠인 죄와 가운데 있고, 그 때문에 침체에 빠져있는 신자나 종들이 밤의 땅인데 이들을 비추는 것은 바로 달 즉, 율법을 말하는 것이며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기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켜 결과적으로는 해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을 해 입은 여인은 바로 밝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거나 율법을 버려두면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율법이 발밑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율법이 있되, 자유 하는 율법이고 자기 영적 상태를 온전케 해주는 율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기뻐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영적 상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진리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어 영에 유익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영범이고, 선한 율범이며 신령한 율범인 것입니다.

보통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죄 지은 것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하기 바쁩니다. 이것은 율법을 발 밑에 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자기 영이 절대적으로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의

를 의지하는 것이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자유 하는 영범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발로 밟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 히브리인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열두 별이라고 함은 예수님이 최초로 세운 열두 사도들이 바로 열두 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예수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신 열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다함은 열두 사도의 그 터 위에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열두 사도의 터 위에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열두 사도 모두 순교의 신앙이고, 모두 이긴 자로 순교를 통해 금 면류관을 받는 신앙인데 그들과 같은 순교의 신앙을 계승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뱀 여인: 아이를 뱀 것은 말씀을 받아서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배고 있다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계13:8]의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그들이 순교할 성도로 확정되는 것이 해산이고,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은 [계3:5]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의 책에 녹명되는 것이 바로 해산인 것입니다. 녹명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빼내져야 할 부분이 빼내지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정착되어 말씀이 역사되면서 그 말씀과 일치되어지게 되면 순교할 자로 그 신앙이 되어져 그 책에 녹명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144,000의 이르는 자가 되어 지면 그 해당되는 책에 녹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이 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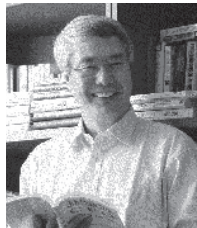
그런데 이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의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를 뱀 여인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직 순교 신앙에 서지 못한 자들은 순교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버리게 하고, 또 순교신앙에 서있는 자들은 144,000의 신앙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회들이 말씀을 변개하여 미혹시키어 믿고 있는 첫째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떠나게 하고 있으니 그 여인이 이와 충돌되어 이 말씀을 부어잡고 이기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심전력 채우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여인이 아파하고 출생하기 전까지 고통 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사랑의 클리닉<25>

하나님의 처방 할레의 비밀

항성주 박사
(사망의클리닉)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레를 명하신다.

그것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레, 즉 포경수술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명령은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아람사람들의 종교적 관습으로 존속하게 된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직 피도 안 마른 갓난아기에게 할레를 요구하시는가. 잔인하신 하나님인 아닐까. 할레를 꼭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하필 생후 8일째인가. 1949년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5백 68명의 자궁암환자 중에서 단 한명의 유대인도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 병원의 입원환자 중 7%가 유대인이므로 5백 68명 중 약 40명의 유대인 자궁암 환자가 있어야 확률적으로 옳은 셈이다.많은 병원에서 실시한 기록조사에서도 유대인에게는 자궁암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게 발생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인도에 있는 여러 종교가운데 할레를 실시하는 모슬렘교도의 부인들은 생활환경이 비슷한 다른 종족에 비해 자궁암의 발생률이 적은 것도 조사된 바 있다. 인체 중 유일하게 피부과잉부분인 음경의 표피는 빨리 제거될수록 잡균들의 서식처를 없애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분만 등의 이유로 자궁점막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이러한 균들이 상당한 자극을 주어 다른 요인과의 상승작용에 의해 자궁암을 쉽게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포경수술을 받은 남자들에게서 음경암의 발생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할레의 암 예방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물론 자궁암 발생은 성경에서 명한 다른 계명(생리시의 철저한 개인위생, 깨끗한 성생활 등)과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암 예방에 대한 거의 완전한 처방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왜 하필 8일째인가. 1946년 11월 미국 의학협회지에서는 신생 남아의 할레가 유익하다는 냉용이 실린 바 있고 이어 3개월 후 같은 잡지에 실린 마틴 박사의 '시기논쟁'에 이어 홀트 박사 등은 할레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생후 8일째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신생아는 생후 2-5일에는 출혈에 민감하고 뇌출혈 등이 우려되어 수술이 불가하고 5-7일째는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정상수준에 이르지 못해 역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역시 혈액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이며 이후 점점 증가하여 생후 8일째 정상인의 110%가 돼 일생 중 가장 높은 때이고 이후 다시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발달된 의학적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후 8일이 할레를 행해야 할 가장 적기임을 자명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생리학자이다.

결국 인간의 무지와 한계가 하나님의 '합리성'과 '완전성'을 철저히 왜곡해 왔던 셈이다.육적 할레가 두 가지 무서운 암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면 악한 성품의 제거와 함께 근원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할레(중생)는 심신에 많은 질병은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서 우리를 능히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진리에는 순종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은 예방의학의 창시자이고 성경은 예방의학의 지침서라고나 할까.

01 단순 장례식 12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안내제공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바른 장례 우수 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필요시 선택 사항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제단 장식 영정제단장식빈소와환경에따라선택 전문 도우미 장례일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
02 3일장 기본 장례식 185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안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지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도우미 1인 10만원 남 상복 1set 5만원 여 상복 1set 5만원 시설의 발생비용 [별도비용]	남 상복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종교, 가족환경에 따라 선택
03 3일장 고급 장례식 22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안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요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and 황초봉인함 매장시 – 횡대		여 상복 종교, 가족 환경에 따라 선택

靑松 건강칼럼(900)... Cholesterol Day

당신의 건강 수명은?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900회를 집필하면서...) 필자는 내자(李幸子)와 함께 봉급 그리고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재산기부(財産寄附)와 재능기부(才能寄附)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1999년12월 회갑을 기념하여 1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것을 필두로 고희와 팔순에 각각 1억원 씩 총 3억원을 장학기금, 복지기금 등에 기부했다. 그동안 필자는 건강관련 서적을 10여권 출판하였으나 독자가 책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능기부의 일환으로2010년 8월 27일부터 매주 ‘靑송건강칼럼’을 집필하여 Facebook 등에 올려 누구나 보도록 하였다. 오늘(2023.5.5) 900회를 집필하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애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靑松 朴明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최대 욕망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를 싫어하고 더욱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음을 향해 가고 죽음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웰빙(Well-Being)과 사람답게 늙는 웰에이징(Well-Aging) 그리고 사람답게 죽는 웰다잉(Well-Dying)의 순서를 밝기를 희망한다.

장수학자들은 85세를 넘기는 사람을 초고령자(超高齢者), 100세는 백수자(百壽者), 105세는 초백수자 그리고 110세는 슈퍼센테너리언(超長壽人,super- centenarian)이라고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만 100세를 넘는 인구가 9만 5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보다 열 배가량 많다. 일본인 초장수자도 140여 명이 있다. 장수학자들은 인간의 최대 수명을 115-125세로 본다. 고령자 중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다. 이에 신체 활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장수가 중요하다.

확실한 건강 장수법은 충분한 수면, 기름진 음식 피하기, 금연(禁煙),절주(節酒),규칙적인 운동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에 자기 수명 내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자율적으로 살려면 몸을 부단히 움직여 끈질기게 살아야 한다.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死亡原因)은 암(26.0%), 심장질환(9.9%), 폐렴(7.2%), 뇌혈관질환(7.1%), 자살(4.2%), 당뇨병

(2.8%), 알츠하이머병(2.5%), 간질환(2.2%), 패혈증(2.0%), 고혈압성 질환(2.0%) 등이다. 10대 사인(死因)중 폐렴, 자살, 패혈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생활습관병에 속한다. 생활습관의학(Lifestyle Medicine)은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다루는 의료 전문분야이다.

서양에서 웰빙 열풍이 몰아치자 이를 재조명하여 ‘삶의 질’과 관련지어 정한 개념이 건강수명(健康壽命, Healthy Life Years)이다. 건강수명을 저해하는 정도인 건강수명손실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건강 위험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쓰인다. 건강수명손실은 각종 질병이나 사고, 또는 환경오염 등 위험요소나 건강유해요소들 및 그로 인한 생명단축, 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애를 보내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저해가 일어났는지를 기간과 정도를 곱해서 판단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건강수명 산출법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계산법은 ‘건강보정기대수명’이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빨리 찾아내 의학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건강수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즉, 만성질환을 앓으며 약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국제 표준 건강수명 계산법은 WHO가 사용하는 건강수명 개념인 ‘건강보정기대수명’이다. 여러 보정 공식을 이용해서 질병, 사고 때문에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시점을 추정하므로, 경증의 만성질환만 걸리더라도 건강치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다.

한국인 기대수명(期待壽命, Life Expectancy)은 2012년 80.9세, 2018년 82.7세, 2020년 83.5세이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방식으로 계산한 건강수명은 2012년65.7년에서 2018년 64.4년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2020년 66.3년으로 다시 약간 증가되었다.

한편 WHO 방식대로 계산하면 한국인 건강수명은 5.7년 늘어 통계청 방식과는 달리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데이터에서는 일본(74.1년), 싱가포르(73.6년)에 이어 우리나라가 73.1년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미국 66.1년, 영국70.1년, 독일 70.9년, 프랑스 72.1년 등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이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전남대학병원 강민구 교수(노년내과)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쇠정도(노쇠지수0.2)에 도달하는 연령이 2010년 71.3세, 2019년 75.0세로 나타났다. 이는 WHO 건강보정기대수명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쇠지수(frailty index) 0.2면 노화와 만성질환이 어느 정도 겹쳐 있고 걷는 속도가 다소 느려지며, 허리가 약간 굽고 근육이 다소 빠진 상태로 지팡이를 사용해서 걷게 되는 정도이다.

노쇠(老衰)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신체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노쇠 정도는 병력(病歷), 신체·검체검사,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장애 등 5개 영역 39가지 항목을 평가해 측정한다. 노쇠 정도에 따라 건강한 집단, 노쇠 전 집단, 경증 노쇠 집단, 중증 노쇠 집단 등으로 분류한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여 노쇠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60대 중반 노쇠가 심하면 10년내 사망 위험이 4.4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웰빙(Well-Being)》은 순우리말로 ‘참살이’라고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대부분 부(富)를 축적하는 데 소비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 부와 정신 건강의 불균형을 가져와 인간 소외와 우울증, 심한 경우 정신적 공황을 겪기까지 한다.

《웰빙》은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물질적 풍요에 비해 정신적 만족도를 찾기 못한 사람들이 늙어지면서 정신적 풍요와 행복, 자기만족이 삶의 중요한 척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원래 웰빙은 미국 중산층이 첨단 문명에 대항해 자연주의, 뉴에이지(New Age) 문화 등을 받아들이며서 대안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웰빙을 추구하는 ‘웰빙족’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성취감의 정도, 여가 생활이나 가족 유대,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웰빙의 척도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과 관련한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웰빙 문화가 확산하였다.

《웰빙》은 음식에 대한 컬러의 개념도 바꾸어 놓았다. 즉 검은색은 시각을 떨어뜨리기에 음식에서 기피하는 색으로 여겼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건강 지향적인 먹거리를 선호하면서 블랙 푸드(black food)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 블랙 푸드 바람이 가장 활발한 음료 시장에서는 검은콩이나 검은깨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했다.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막고 신체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이 1930년에 출간한 ‘행복의 정복’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행복’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고전이다. 러셀에 따르면 행복(幸福)은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부산물이지, 그 자체를 직접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느끼는 행복(幸)이 바로 진정한 행복감(幸福感)을 주는 행복이다.

러셀은 삶의 결과로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 사랑을 향한 마음, 좋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지적 탐구심 등



을 제시했다.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 즉 자기도취를 멈추고 사람과 사물에 따뜻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복권 당첨처럼 우연한 행복을 추구할 때가 많지만,행복은 우리 자신의 노력, 즉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

《웰에이징(Well-Aging)》 사람은 누구나 늙는 다(aging). 안티에이징(anti-aging)은 노화(老化)를 거부하고 이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개념이지만, 《웰에이징》은 신체가 나이 드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한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세포는 살면서 34세, 60세, 78세에서 급속히 노화하는 시기를 거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적용 나이는 1981년 이래로 현재까지 65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반(52.7%)은 노인 기준 연령을 만70-74세로 인식했으며,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이 2018년 기준 72.3세이다.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3010명(1957년 이후 출생자)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72.6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수과학자인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에 우리는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당하게 늙음을 맞이해야 한다. 노랫말(노사연의 바깥)에도 “우리는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웰에이징》의 핵심적인 개념은 노화를 적대시하지 않고 변화를 이해하며 일상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에<웰에이징센터>가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2021년 12월에 개소했다.

《웰에이징》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으로▲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채소 위주의 식사하기,▲해산물을 하루 75g 이상 섭취하기,▲고기는 구워 먹기 보다는 삶아 먹기,▲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등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근육은 50세 이후부터는 줄어든다는 속도가 빨라지므로 근력(筋力)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protein)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그린란드 식단’에서는 생선(오메가3, omega-3)을 많이 먹는다. 박상철 교수는 한국 특유의 장수(長壽) 먹거리로 들깨(오메가3지방산의 주요 공급원)와 발효식품(김치, 된장, 간장 등)을 꼽는다. 우리는 채소를 데치거나 무쳐 먹는데 이런 조리 과정을 통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 들어난다.

《웰다잉(Well-Dying)》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러나 사고사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죽느냐는 선택은 할 수 있으므로 인간적 존엄에 찬 죽음인 존엄사(尊嚴死)를 선택해야 한다. 연명의료(延命醫療,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판단을 받은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된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 2014년 10월 1일생)는 고향에서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4년(1977-1981)밖에 되지 않아 이렇다 할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폄하되지만 오히려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호감이 가는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98세로 미국 역사상 최장수 전직 대통령인 그는 지난 수십 년 누구보다 생산적인 노년을 보냈다. 그는 해비타트(Habitat)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각종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2002년 노벨평화상(Nobel prize for peace)을 수상했다. 또한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 때 직접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담판으로 갈등 해소의 결정적인 목표를 뒀다.

하지만 2015년 간암이 발병하여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여 완치했으나 다시 피부암이 발병하여 치료를 했다. 암으로 어려움을 겪더니 지금은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기는 피부암이 재발하여 간과 뇌로 전이된 상태다. 이에 더 이상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여생을 보내며 호스피스 케어(완화의료)를 받고 있다.

완화의료 호스피스(palliative care hospice)란 체계적으로 훈련된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정서·심리사회분야의 사회복지사, 예술치료팀, 자원봉사자, 영적 분야의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이 상황별로 통증과 증상 조절,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다학제간으로 이뤄진 팀 차원의 전인적 케어를 말한다. 즉, 암 환자 등 중증 말기 환자를 치료하기보다 고통을 경감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집중하는 의료서비스다.

죽음 준비교육에서 간절한 유무 감각을 가질 것, 영원한 생명에의 희망을 가질 것, 유언장(遺言狀)이나 비문(碑文)을 미리 써 놓을 것 등을 강조한다. 자신의 장례표지, 장지 또는 시신 기증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열쇠가 된다. 필자 부부는 지난 1999년 1월에 사후 시신(屍身)을 연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기증하여 의학교육용으로 사용하기로 서약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일 목사
(홍익대학 이사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단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한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함동보수총동원회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담임 백명영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매장터로4, 3층(신촌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視聽牧師 서명범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8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교회

담임 마순덕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금 오후 03:00, 08: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라평화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f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향교회

담임 김관호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青松 건강칼럼(900)... Cholesterol Day

대구출신 천재화가 이인성 / 오지호 / 구본웅



青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青松 건강칼럼 (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천재화가 이인성(李仁成)은 1912년 8월 28일 대구에서 출생했다. 이인성은 대구시 산격동에서 활동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워 나갔다.

이에 이인성을 기리는<이인성 사과나무 거리 (LEE IN SUNG Apple Tree Street)>가 산격동에 조성되어 이인성의 작품들이 벽화로 재현되어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과(apple)는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50년대에는 대구가 특산지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인문학 연구강좌(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100년) 제3강좌(4월 11일 오후 2-4시)에서 정하윤 박사(이화여대)는 천재화가 이인성과 구본웅, 오지호 등 3명의 생애와 작품에 관하여 설명했다. 박물관 정원 언뜻에는 수련(睡蓮)이 자라고 있었다.



▲ 이인성 (자화상)과 <가을 어느날>

이인성은 1929년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선전)에 처음 입선한 뒤로 1936년까지 천부작 재능과 신선한 표현감각을 발휘한 수채화와 유화로 입선과 특선을 거듭하여, 천재적인 화가로서 각광을 받았다.

약관의 나이로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아소(我笑) 이인성은 1932년 전일본수

채화회전을 비롯하여 1933-35년의 제국미술원전(약칭 제전), 1938년의 문부성미술전(약칭 문전), 1933-34년의 광풍회전에서 잇달아 입선하였다.

이인성은 1930년대 ‘조선의 지보(至寶)’, ‘양화계의 거벽(巨擘)’으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다.

이인성은 20대 중반의 청년기에 타고난 재능을 최대로 발휘했으며, 유럽의 근대 회화 사조인 인상파·후기 인상파·아수파·표현파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기법으로 재치 있게 소화하고 자유롭게 활용하였다.

그의 불투명 수채화의 극히 과감한 표현 처리와 특출한 기량 발휘는 근대 한국 미술사에서 특히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채화의 본질적 묘미와 높은 차원의 표현성이 그로부터 처음 보인 것이다.

근대에 미술평론가들이 ‘한국근대유화 베스트 10’에 1위로 선정한<경주의 산곡에서> (1935)를 비롯하여<가을 어느 날>(1932), <복숭아>(1939), <해당화>(1944) 등 불후의 명작들과 근대화단에서 가장 뛰어난 수채화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가이유>(1932), <아리랑 고개>(1934), <여름 실내에서>(1934) 등 정물화, 풍경화 외에도 작가 자신을 그린 몇 점의(자화상)등 인물 초상화 등 다양한 장르와 기법을 보여준다.

1945년부터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과에 강사로 나갔다. 1947년 조선미술문화화회를 조직하였으며, 1948년에는 국화회(國畫會)회화연구소를 개설하여 수채화와 유화를 지도하고,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추천 작가로 서양화부 심사위원에 선임되었다. 애석하게도 1950년 11월 4일 비운의 총기 오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오지호(吳之湖, 1905-1982)는 전남 화순에서 구한말 보성군수를 지낸 오재영의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 오지호 (남향집)

1919년 3.1운동 직후 나라 잃은 통탄에 비분강개하며 자결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강경한 성품과 남다른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어린 시절 이름은 점수(占壽)였고, 동북보통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전주고보에 진학했다가 서울의 휘문고보로 편입하면서 신문화와 신미술에 눈을 떴다. 휘문고보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쿄미술학교에서 유화를 배우고 돌아온 고희동(高義東, 1886-1965)이 미술교사로 있었다.

오지호는 1925년 화가수업을 위해 일본에 건너가 기초과정인 가와바타 미술학교를 거쳐1926년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당시 도쿄미술학교는 일본적인 아카데미즘을 표방하던 교육기관으로 오지호는 후지시마 다케시의 가르침을 받았다. 1931년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돌아와 김주경 등과 젊은 미술가들의 모임인 ‘녹향회’의 동인이 되어 사실적 자연주의 기법의 유화를 발표했다. 1938년에는 컬러로<오지호·김주경 2인 화집>을 발간했다.

오지호는 1935년부터 개성 송도고보의 미술 교사로 재직했다.

송악산 아래 김주경이 남겨 준 초가는 그가 1944년까지 살았던 집으로 그의 대표적인<남향집>이 바로 그 집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화창한 봄날의 따뜻한 기운을 쏟아지는 빛과 보라색 그림자로 표현했다. ‘그늘에도 빛이 있다’고 생각한 오지호는 ‘그늘은 빛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빛이 변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문을 나서는 어린 소녀와 담장 아래에서 봄별을 받으여 주고 있는 삼살개가 정겨운 감흥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오지호는 8.15광복 직후 1948년부터 광주에 정착하여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후학을 가르쳤고 호남지역 미술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 중에는 작품이 불에 타 없어지는 고통을 겪었으며, 단순한 형태와 강렬한 원색의 작품을 선보였다. 오지호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973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 예술원상(1977)을 수상했으며, 1982년12월 25일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오지호 기념관>이 전남 화순군에 1998년 개관했다.

한국 최초의 인상주의 화가인 오지호의 주요 작품에는 나부(1928), 아내의 상(1936), 사과밭(1937), 도원풍경(1937), 남향집(1939), 가을풍경(1953), 열대어(1964),향구(1967), 무등산(1969), 만추(1969), 과수원 풍경(1972), 함부르크 풍경(1974), 선운사 설경(1979), 가을풍경(1981)등이 있다.

저서로는 오지호 작품집(1978), 미술평론집 현대회화의 근본문제(1968), 알파벳 문명의 종언

(1979), 미학원론 미와 회화의 과학(1992) 등을 남겼다.



▲구본웅 친구(이상)의 초상

구본웅(西山 具本雄, 1906-1952)은 1906년 3월 7일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출판사인 창문사 사장을 지낸 언론인이자 기업인 구자혁이다.

어머니가 구본웅을 낳고 일찍 사망한 뒤 2살 무렵, 돌보는 사람의 실수로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평생을 등이 굽은 폼주로 살았다. 신명학교, 경신고 등보통학교를 다녔고, 경신고보 재학 중에 미술에



▲ 박물관 연못

입문하여 고려미술회의 고희동(高義東)에게서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배웠다.

이후 고려미술원에서 조각가 김복진에게 사사하여 조각을 배운 뒤 화가이면서도 조각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신체가 불편한 구본웅에게 조소는 쉬운 분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1921년 조각 부문에서 조선미술전람회에<얼굴 습작>으로 특선으로 입상했으며, 1927년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한 뒤 1928년 본격적인 미술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했다.

일본에서는 1928년 가와바타미술학교를 거쳐 1929년 니혼대학에서는 미술이론을 수학과고, 1933년 다이헤이요미술학교에서 유화를 공부하는 등 다재로운 교육을 받았다.

귀국한 이듬해 1934년에 서양화가 단체인 목일회, 1935년 백만회 등의 진취적인 성향의 미술단체 창립에 참여했고 미술비평활동을 전개했다.

구본웅의 화풍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나,색채가 강렬하고 붓질이 거칠어 야수와 계열로 분류된다.

대표작으로 여성의 신체를 과장되게 묘사한 여인(1940), 초등학교 동창인 작가 이상(李箱, 1910-1937)을 그린 우인상(친구의 초상, 1935) 등이 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미군정청 편수국에서 미술 과목 편수사로 활동했으며,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언론계에 종사하였다.

1952년 2월 2일 서울 누하동 자택에서 급성 폐렴(肺炎)으로 47세에 세상을 떠났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심일예배 오후 7:30
총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합동보수신학학술원』

성경신학, 실천신학 중심의 실천교육
대학/2년 8학기 대학원/1년 6개월 6학기
(주.야, 사이버(월.화.수.목.금.토)/수시모집
연구원/리더십 과정, 학술원/교수양성
설교전문대학(단기 12주/정규 1년/전문 2년)
서울본원/서울금천구시흥대로97(유희1동 216호)
부산분교/부산 수영구 광서로14-1
분교(수원.인천.대전.대구.광주.청주.전주.울산.창원.춘천.제주

총장 :차요한 목사(Ph.D) HP:010-5341-123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정민 목사

성서하나님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 (02)465-40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포어 : 창세로부터 주님처럼 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11: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교개로 366(가좌동)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평호 목사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고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벤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기독교
장로회

담임 오종설 목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행복의집,(시온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동훈복지재단**

대표이사 광동훈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강원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법인사무국)
T. 033-576-0202 (070-8986-1009, 070-8986-1004) M. 010-7580-1004
F. 033-576-0236 (0504-091-4234) E. dhwf1004@naver.com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명숙 목사

삼성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낮 예배 :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 오후 7:00
매일저녁기도회 : 오후 8:00
경기도 안성시 구례골길 213-8 전화 : 010-4087-346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송명화 목사

세계영성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 예배 : 오후 7:30
목요 은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찬양 일전번제 : 오후 7:40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5월 첫째 주일「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용종 있어요?"



10여년 쯤이었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때였습니다. 종합검진을 처음 받았으니 대장내시경도 처음 받은 것이죠. 저는 그때까지 종합검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 다.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 하면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 주시리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누구도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에서 용종이 몇 개 나왔고, 또 어떤 분은 7개, 8개가 있어서 그것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종을 그대로 두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러니 빨리 종합검진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면 마취를 받기 전에 저의 관심은 “과연 내 속에도 용종이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나에게는

절대로 용종이 없을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 마취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면 마취 중에 닥터에게 느닷없이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제 안에 용종이 있나요?” 그랬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닥터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 양반 마취가 왜 제대로 안 된 거야? 약 좀 더 넣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음대한 줄 아십니까? “이 양반이라니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자 닥터가 말씀하시기를 “예, 알고 있습니다. 용종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대장내시경을 했지만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냥 잠든 채로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용종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

사결과도 깨끗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이재훈 의료목사님이 새로 개원하는 다건연세내과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날 개원예배를 드리고 병원 시설을 둘러보는데 새로 개원한 병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마자 호텔 프런트와 같은 분위기를 느꼈고 내과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도 개설하여 여성들의 자궁경부암과 유방암까지 진단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서 가까이 있는 동네 대학병원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다음 날 받을 내시경을 둘러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날 저녁 장 청소를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게다가 가슴까지 설레어서 예약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 소풍 가는 것처럼 들뜬 분위기였고 설레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다건연세내과에 개원 제1호 환자로 내시경을 받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용종은 없겠지? 어찌 내 안에 용종이 있을 수 있겠어?”

제가 얼마나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했는지 이번에도 수면 마취 중에 눈을 뜨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용종 있었나요? 용종 없죠?” 그러자 이재훈 원장님(목사님)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제가 마취 중에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용종 없다고 대답하셨죠?” 원장님이 답하기를 확실하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용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없다고 확신을 했고 그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 수면 마취 중에 깨어나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다건연세내과 1호 내원 환자로서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용종이 없고 깨끗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건연세내과병원이 정말 형통하고 번성하는 길로 전제를 하고 상상을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고 기대가 컸으면 수면 마취 중에 눈을 부릅뜨고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냥 모든 걸 의뢰진에게 맡겨두고 편히 잠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잠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저의 기대감과 다건연세내과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했다는 것이겠지요.

이 다음에도 대장내시경을 받을 때 수면 마취 중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생각과 상상대로 제 안에 용종이 하나도 없었듯이 다건연세내과가 더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앞으로 다건연세내과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섬기고 주민 보건에 귀하게 쓰임 받고 형통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만여 명 몰려 대박난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북평 제2일반산 엄단지(러시아대게마을 일원)에서 열린 ‘2023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가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3일간 12여명의 구름 인파가 몰리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는 개막일인 5일 어린이날 연휴로 인해 가족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인근 추암해변과 삼척읍

비치,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행사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축제의 시너지를 높이며 성공적으로 이끈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기다림 속에 시작된 축제 첫날 행사장으로 실재없이 이어지는 차량으로 주차장은 이미 만차가 되었고, 러시아 대게마을과 인근의 이면도로 등 행사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라도 주차를 해 놓고 걸어오는 시민, 관광객 행렬과 함께 셔틀버스 이용객도 꾸준히 이어졌다.

축제 첫날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굿은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류도시, 러시아 무역사 및 베트남 초청단 등 주요 내빈과 시민, 관광객들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에 이어 장윤정, 김범룡, 배일호, 요요미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전국 TOP10가요쇼가 화려하게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또,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랩틀채낚시체험, 크랩맨손잡기 행사장에서는 남녀노소,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되어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으며, 대게를 활용한 음식(어묵, 라면, 국수, 파전, 핫도그 등)을 선

보인 동 먹거리 장터에는 준비했던 식재료가 대부분 조기 소진되거나 만석이 되어 뒤늦게 방문한 손님들을 돌려보낼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고, 일부 동에서는 3일간 행사를 위해 준비한 재료가 동이나는 등 활기를 띄었다.

특히,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각각 3만원과 5만원에 판매하는 크랩 할인판매장에서는 저렴한 값에 크랩류를 구입하려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최소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만 대게를 구입할 수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6일부터 7일까지 특설무대에서는 아웃사이더, 락커스빈, DJ예송, NSW YOON, 코리야 브레이크스, 비트박스 사운드 굿 등 랩퍼, DJ, 비보이 초청공연을 비롯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행사로 빛났다.

심규언 시장은 “이번 축제는 우리 동해시가 대게와 킹크랩의 유통 중심지에서 가공산업의 중심지,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해 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의 출발을 의미한다”며, “이번 축제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대게와 킹크랩을 즐길 수 있는 도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육성하여 대게산업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잠들었다 주님의 품으로 가신 향년 82세 성산 최성규 목사



‘성경적 효(孝)’ 운동을 해온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원로, 한기총 증경대표회장)가 5월 1일(월) 향년 82세로 주님 품에 잠들었다.

최 목사는 최근까지 췌장암으로 투병해 왔으며, 이날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잠든 최 목사는 1983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인천지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가 현재 인천순복음교회이다. 1990년 지교회에서 독립한 후 인천 지역 최대 교회 중 한 곳으로 성장시켰다. 2015년

부터는 최 목사의 장남 최용호 목사가 목회하고 있다.

최 목사는 1997년 세계 최조로 효(孝) 실천을 위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세웠다. 이 외에 국민대 통합위원장, 한반도평화화해협력포럼 이사장, 한국교문화실천운동본부 이사장, 하모니운동중앙회장 등을 지냈다. 교계에서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한세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성규 목사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 3월 3일 정서영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도하기도 했다. 최 목사의 전국한송실은 인천순복음교회에 마련됐으며, 전국한송예배는 지난 4일(목) 오전 7시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하관예배는 이날 오전 11시 충

남 천안시 선산에서 진행되어 안장되었다.

유족으로는 사모 김정자 여사, 장남 최용호 목사, 차남 최용석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막내 최한나 숙명여대 교수 등이 있다.

출처 - 최성규 목사, 82세로 잠드셨다. : 한교총 보도자료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www.mokpodream.org

축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요셉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 여러분께
교회설립 34주년을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
외 직원일동 배

이 사진은 덕유산(항적봉)
작가 정기남 목사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담임목사 이요셉

주소: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 전화: 061)277-0496 차량운행: BUS 3번, 60번, 600번

www.mokpodream.org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 여성안수를 호소

예장합동 제60회 목사장로기도회의 현장에서 유인물 배포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는 예장합동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현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들이 여성이라는 성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소원한다.”는 “예장합동 총회의 새로운 개혁과 부흥을 위해 여성안수를 하라”는 것을 간곡하게 촉구했다.

이날 여성 동문회는 여성안수가 필요한 현실적이라면서, “선교적 사명을 남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남녀 목회자 모두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된다.”면서 여성 군중목사의 부재로 합동교단의 영향력 감소를 예로 들었다.

게다가 “안수를 허용하는 타교단으로 인재를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동문회는 “양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교육받은 젊은 세대는 합동교단의 여성안수 불허를 명백한 불평등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여동문회는 여성 안수가 필요한 신학적 근거로 “창조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남녀는 평등하며 상호보완적 돕는 관계”라며 “갈 3장 28절은 남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들을 사용하셨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성 지도자를 세우셨고(드보라, 미라, 훌다). 신약시대에도 세우셨다.”하고, 사도 유니아, 안수집사 뱌비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복음전파와 사역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밝혔다. 또한 “12사도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라며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는 아랍의 열두 아들에 대한 상징으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메시

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다. 이것이 여성안수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동문회는 “(여성안수 반대의 근거로 언급되는) 바울 서신의 구절은 당시 교회 문제에 대한 조언”이라며 “고전 14장 34절과 딤후 2장 11~15절은 그 당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이기에 모든 세대 여성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며 주장했다.

여동문회는 “예수님은 여성을 세우셨다.”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선택하셨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하나님이나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여호와와 영을 부여 주리라는 예언의 성취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여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신구약은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에서 황해노회장 권동희 씨가 현의

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이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또한 제103회 총회 때는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시행과 GMS 독신 여성 선교사 및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 계속 시행은 총회 결의로 시행한 사항이므로 계속 하라하기로 하되 후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에서 심의토록 보내기로 가결되었다.

제104회 총회, 제105회 총회 때는 여성사역자 강도권 관련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분회 결의대로하기로 가결했다. 1년 연장하기로 하며,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제106회 총회에서는 김천노회장 김정태 씨가 현의한 총신 신대원 여성 졸업자 목사 안수 하라 현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하기로 가결했으며, 익산노회장 양원모 씨가 현의한 군목 및 선교사 특별사역에 한해 여성목사 안수 시행의 건은 신학부 보고대로하기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105회 총회 때는 여성 강도권에 대하여 신학부 보고와 정치부 보고가 서로 상충하므로 신학부에 1년 더 연구토록 한 건: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헌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제107회 총회에서는 여성사역자의 총회 언급가인 청원에 대하여는 언급제안으로 보내어 처리토록 가결되었으며, 따라서 여성안수는 헌법과 본 교단 신학 문제로 불가능하나 선교 현장과 군목문제 등 해결과제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연장하여 더 연구토록 가결되었다.

총신대 재단이사장에 화종부 목사 선출

화종부 목사 9표, 강제식 목사 2표, 기권 1표



‘말씀과 순명’ 제4차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뉴스파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에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9일 오후 7시 총신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화종부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화목사는 9표, 강제식 이사는 2표를 얻었으며, 기권은 1표였다.

교경협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온 화목사가 이사장에 선출됨에 따라 교경협 소속인 박성규 차기 총장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총신을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전임 김기철 이사장은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단이사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언론은 물론 재단이사장과의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았

한교총 감사의 달 맞아 연합운동 공로자 초청 오찬 가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4일 낮 12시 서울 엠베서더호텔에서 연합운동 공로자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교총 명예회장을 비롯해 교단에서 추천한 증경총회장 50여 명이 초청되었다. 한교총은 이날 행사에서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연합운동에 협

력해 온 원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부 예배는 송홍도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가 인도를 맡았으며 기성총회 조일래 목사의 기도와 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설교, 예장합동총회 김선규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의인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족사를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4년 만에 다시 열려

예장합동팀과 기침팀이 각각 우승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주최하는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가 지난 5월 4일 오전 8시에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열렸다.

한교총 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정동균 목사)가 주관하고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가 협력하는 본 행사는 한국교회 교단 간 교류와 연합을 목적으로 2018년에 시작해 올해

15개 팀, 38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경기는 할렐루야 조와 임마누엘 조로 나뉘어 풀 리그를 벌인 뒤 상위 4팀이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할렐루야 조에

는 기감, 기성, 예장백석, 예장합동, 기하성, 나성, 예장합신, 예장통합이 참가했다. 임마누엘 조에는 예장대신, 예장개혁, 기침, 예성, 교단연합팀, 예장백석대신, 예장고신이 출전했다. 할렐루야 조에서는 예장합동이 우승, 기감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임마누엘 조에서는 기침이 우승, 예장고신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경기에 앞서 개회예배에서 권순웅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는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단연합기관인 한교총이 개최한 축구대회에 많은 교단이 참여 준 것을 감사하며, 서로 친교를 통해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김중우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맡아 선수들을 환영했다.

소상히 설명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헌신한 종들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교총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인사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오찬을 나눴다. 류영모 목사(직전 대표회장)는 “교단의 원로들을 기억하고 초대해준 한교총에 감사한다. 한교총이 세상과 소통하고 보다 좋은 일들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참석한 예장합동총회 전계현 목사(명예회장)는 “설립 초기 한교총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막상 이렇게 잘 운영되고 발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말로 자랑스럽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며, 부산에서 참석한 고신총회 김성복 목사(명예회장)는 “한교총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다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현재 회원 교단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계 원로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위해 매년 5월 교단의 추천을 받아 원로 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환영사에서 “천안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중에는 유독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았다”며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천안을 다시 방문한 목회자 여러분을 70만 천안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대회사에서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예배당을 지키며 전심을 복음을 전한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번 축구대회가 동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시 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폐회식은 준비위원장 정동균 목사의 인사와 송홍도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의 시상과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엘림교회
표어: 영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예배의 예배시간 안내		교육부(주일)	
주일 1부 예배	AM 11:00 본당	태양아 예배	AM 9:00 302호
주일 2부 예배	PM 2:00 본당	유아부 예배	AM 9:00 201호
수요예배	PM 8:00 본당	유초등부 예배	AM 9:00 본당
금요찬양예배	PM 8:00 본당	중고등부 예배	AM 9:00 본당
새벽예배	AM 5:00 본당	청년부 예배	PM 8:00 본당

담임: 왕 대석 목사
Wang Dae Seok Pastor
Email: king.415@naver.net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70번지
1270 Kwonsung-dong, Kwonsung-gu, Suwon-si
Gyeonggi-do, 441-836 Korea

교 회: (031) 224-8475
목사관: (070) 8269-7809
F A X: (031) 226-5894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산 임마누엘교회
2023년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2부 오전 11시:00
주일 오후예배 3부 오후 2: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 새벽예배 오전 5:30

담임 강익수 목사

충남 아산시 득산로 41번길 49-16
교회: (041) 546-4325) 010-3759-0192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2023년도 신앙목표: “깨어 준비하고 있오라”

주일에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목사 장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개원대약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층5 Tel 031-424-7612
홈페이지 http://jjcn.kr

파종진목사 2023년 5월 국내외 집회 일정

○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자원위원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역 연구원 겸총회 대표교인
○ 서울대학교(ABK)제12기 원우회교인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월)~3(수) 서울 은혜제일교회 (김종분 목사) 010-4071-3112
2(화) 오전 Miracles 국제선교센터 (새벽별교회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3(수) 오전~후 강남 금성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고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4(목) 오후 서울 송파한마음교회 (최은원 목사) 010-3496-3686
4(목) 저녁 오산리 최자실 기념기도회 (원장 김철형 목사) (02) 6181-9282
주최: Good TV 부흥협의회
5(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8(월) 오후 인천 기쁨의교회 (이종선 목사) 010212-9191
10(수)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종철) 잠실 롯데 콘서트홀
11(목)~13(토) 서울 위대한학숙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제 230차(A) 해외성회 (230th Overseas Assembly)
15(월)~16(화) 필리핀 (Philippines) 팔라마시 전야교회 (하용철 목사)
17(수)~18(목) 필리핀 (Philippines) 팔라마시 원주민 및 목회자 성회 (준비위원장 하용철 목사)
19(금) 오전 서울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21(주) 오후 서울 한마음교회 (최은원 목사) 010-3496-3686
22(월) 저녁 서울 예바다교회 (정군자 목사) 010-3403-9190
23(화) 저녁 서울 위대한학숙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4(수)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제 230차(B) 해외성회 (230th Overseas Assembly)
25(목)~26(금)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타슈켄트 주최: 서울대학교 ABK 사무국
27(토)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사마르칸트
28(주)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부하라
29(월) 귀국 (오전)
30(화)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31(수) 송주 반석기도원 (원장 고관능 목사) 010-2391-3004
주관: 작은자살전교회 (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60(계동로) Fax. 02)401-7770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기회를 주실 때 바른 선택을 합시다
성경: 열왕기하 14장 23~27절 찬송가 425장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셔도 이들이 도저히 말로는 깨닫지 못하니가 물질적으로라도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올까 기대하시며 마지막 수단으로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2세 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신앙적으로는 대위기였습니다. 물질 복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깨닫고, 그 전에 먹고사느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들을 완전히 맡겨야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멸망이 확정된 니느웨 성도 회개하니가 구원을 얻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선택하여 승리 하길 바랍니다.

제목: 비전훈련
성경: 창세기 13장 10~18절 찬송가 490장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향하던 길에서 조가 톳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 이제 서로 함께 지낼 수 없어 분가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둘 다 그 나아가길 정할 때 '눈을 들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보았고 결국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해서,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비전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말씀 따라 인생과 물질과 관계와 미래를 볼 수 있게 훈련할 때 거룩한 비전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두 돌비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
성경: 열왕기하 15장 8~26절 찬송가 400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앙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모세의 율법에 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열심대로 한번 신나게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모세의 두 돌비 신앙과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앙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와 성전에 계시니 모두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두 손으로 움켜쥐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순간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할 때 망해도 하나님 말씀을 볼드는 믿음으로 갔을 때, 5대 이상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하나님 은혜의 품에 거하라
성경: 열왕기하 16장 1~6절 찬송가 310장

아하스는 하나님의 고리를 끊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적어도 아버지 요단이나 할아버지 웃시아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북쪽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붙잡혀 가는 불상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한마디 하니가 20만명의 포로가 손가락하나 대지 않았는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목: 절제훈련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27절 찬송가 341장

영적인 훈련과 성장에 있어서 기본적인이고도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가 절제

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절제라는 신앙의 원리를 운동선수 비유를 통해 실감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 절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거룩한 투자입니다. 운동선수가 체중을 조절하고 음식을 끊으며 가족까지도 떠나 있는 이유는 절제의 시간을 보낸 후 경기에서 승리하고 메달을 받게 될 인정과 보상 때문입니다. 성경적 절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시는 절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제목: 위기 중에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성경: 열왕기하 17장 1~8절 찬송가 292장

하나님이 호세아 왕으로 하여금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살 수 있는 길은 겸손하게 그 심판을 인정하고 죄값을 감당하고 치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 은혜를 누리게 되려면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모두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은혜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분수를 잘 생각하고 너무 높아지려 하거나 너무 돈을 많이 벌려 하거나 너무 유명해지려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목: 감사훈련
성경: 빌립보서 4장 6~7절 찬송가 66장

본문 말씀은 기도의 원리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 이전에, 만나는 모든 일마다 품게 되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1) 모든 일을 만날 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모든 일 앞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는 염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 감사를 선택하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의 파수꾼이 세워집니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제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성경: 열왕기하 17장 7~18절 찬송가 314장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땅에서 몰아냈고 결국 자기들이 망하게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 갔을까요? 사실 가난한 종교나 금송아지 종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다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정성만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은 죽고 성령의 능력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목: 언어훈련
성경: 잠언 15장 4절 찬송가 314장

말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1)말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가 하면, 어떤 말은 낙심과 좌절로 쫓아가는 마음과 영혼에 양약과 같이 치료하는 역사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은 중요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긍정적 말을 했다면 열매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말로 키워 왔다면 그 결과 또한 부정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미래지향적 말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가장 능력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워 우리 언어가 늘 생명을 주는 언어가 되도록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진정한 개혁
성경: 열왕기하 18장 1~12절 찬송가 358장

히스기야는 정말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모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미친 사람처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히스기야는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욕하고, 어려움이 온다해도 끝까지 말씀대로 해 보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적 개혁은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혔던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 온유훈련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찬송가 452장

성경적 온유함은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온유함이란 결코 우유부단하고, 주장도 없고, 개성도 없는 소심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는 '야생마

가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힘은 그대로이지만 그 힘이 잘 통제되고 조절될 때 '온유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고백에 순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장에 올라 우리 힘의 고삐를 당기실 때 그것에 순응해서 우리의 힘을 잘 발휘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주님의 고백과 상관없는 말과 감정 표현과 행동과 돈 씹이는 결코 성경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고삐를 당기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하나님의 역전을 믿는 신앙
성경: 열왕기하 19장 8~19절 찬송가 452장

히스기야는 다른 것은 견뎠지만, 많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아수르 왕의 종개에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듣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도 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욕을 먹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울면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미련하게 그냥 참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셔서 결국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이 가능성을 내려놓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가능성과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키워”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시작된 효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2일(토) 오후 2시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하나교회(담임 박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 예배에서 하나교회 찬양사역자와 참가 청소년들이 함께 찬양한 후 남승우 목사(효사랑선교회 부대표)가 개회 기도예에 이어 양국 국가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른 뒤 풀림 목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가 환영사, 심삼은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와 조봉남 장로(OC한인회 회장)가 축사, 추원호 목사(OC목사회 중경회장)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쳤다.

2부 시상식에서는 축하송으로 유수진 전도사의 찬양과 더불어 심사위원들이 소개됐다. 글짓기 부문에는 라나민 작가가, 그림 부문에는 주아라(뉴아트 아카데미) 디렉터가 공정한 심사 기준을 밝혔다.

제10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67명의

청소년들이 효글짓기 와 공모전에 참가했다. 상금이 있는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학생 3명과 특별상으로 한인 청소년이 아닌 히스패닉 크리스천 대안학교 학생 12명이 참가해 특별상을 시상했다. 유치원생 3명에게도 특별히 꿈나무상을, 40명에게는 장려상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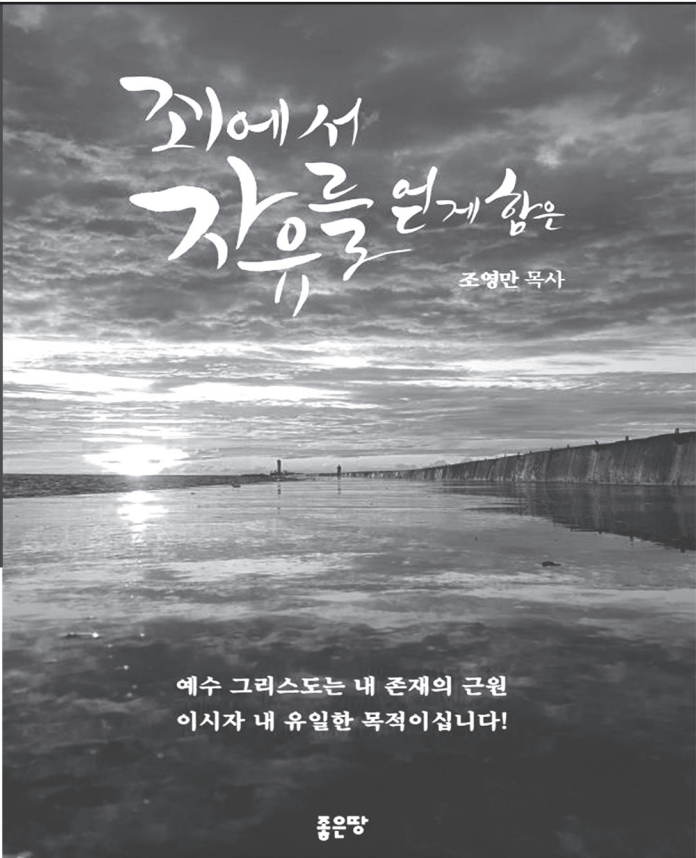
대표 김영찬 목사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찾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경인백석신학교 교수
지저스타임즈 부사장
현)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시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메트로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도목사
전) 인천 동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인하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전공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10회

저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나침 출판사)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아가강해 상』(나침)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아가강해 하』(좋은땅)
『자유하리라』(좋은땅 출판사)
『거듭남은 성경새래가 아닙니다』(창출 출판사)
『전인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나침 출판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존재의 근원
이시자 내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종영만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 시온교회 658101-01-715840 국민은행
책가격 : 15,000원
다음 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유튜브 : 조영만

목차

1. 성결을 이루려면
2. 죄에서 벗어나려면
3. 기쁜 소식(1) -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4. 기쁜 소식(2) - 원죄
5. 기쁜 소식(3) -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6. 속시굴(새시람)을 강권케 하는 비결
7.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8. 겹시람(옛시람) 끊겨 죽이는 비결
9. 죄를 짓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제 끝
10.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계시는 것 이제 끝
11. 죄로 인한 죄절과 실패와 괴로움 이제 끝
12. 독립군과 해방군
13. 새생애 이긴 이름 - 물과 피와 성령
14.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
15. 장대위에 단 노뿔을 바라보라
16.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죄절을 하라하신 이유
17.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18. 죄를 피 돌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19. 환난과 시험을 하라하시는 이유
20.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21. 예금(새생)에서 광애(육신)로
22. 광애(육신)에서 가나안(성결)으로
23.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
24.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25. 두 번 죽어야 성결의 은사
26.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
27.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8.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9. 목회서신(000 목사님께)
30.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31.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 - 멸망한 다리에 댄 목발?
32.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1)
33.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
34.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1)
35.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3)
36.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4)
37.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불쌍한 코끼리

38.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1)
39. 동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2)
40. 죄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참니까?
41. 마음(혼)에 있는 비전진 쉽게 버리는 비법(1)
42. 마음(혼)에 있는 비전진 쉽게 버리는 비법(2)
43.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
44.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2)
45.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46.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47. 공개! 마음의 경작 비결
48. 안식 그 이후
49. 죄(Sins)사함과 죄(Sin)에서의 해방
50. 목회서신(000 성도님에게)
51.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의미는?
52.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53. 영의 사람이 되려면?
54.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
55.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56.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57.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삼지 마세요!
58.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59.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60.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2)
6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62. 메בל레와 나비(젓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
63. 원수마귀의 거짓말
64. 영적 생활의 기본 원리
65.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6.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선한 싸움은?
67.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68. 첫 열매로 들림 받기 위한 새 가지 방법은?
69. 회개하러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70.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은?
71. 일한 척만 척량하시는 주님
72. 마지막 때 지어야 하는 상종하 삼층 방주는?
73. 절에서 낳은 자식이란?
74.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려면?
75.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직이 있기까지 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신앙의 명문가, 복의 명문가를 이루는
귀한 가정과 가문들 위에 큰 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교회 담임목사 소진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임직 감사예배

일시 | 2023년 5월 14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 예복교회 본당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

문의 | 02-934-1232

홈페이지 | www.yebok.kr

장로은퇴 / 명예장로추대 /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은퇴장로



한광희



전승길

명예장로



이병수



이정현



서정철



서문범

장로



정규택



김태섭



윤종필



송석치

장로



최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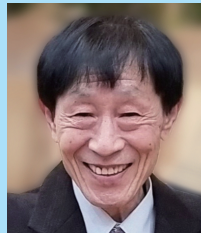


김석현



김태영

안수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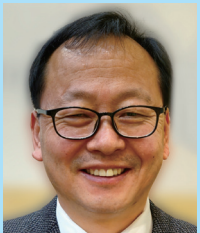
최요셉



박덕진



류재원



소복섭



정우진



이시훈



조기수

권사



강미란



조성숙



사성희



장희숙



박윤희



조영숙



임수형



최은연



조은영



최시원



최예심

권사



이경애



이유림



박영숙



서은미

취임권사



이옥연



김호영



이미애



김복례



박명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